

'더운 공기 식혀줄 정원, 집에서 만들어요'

빗물 모은 바닥층 위 식물 심는 '빗물 정원', 도심 열기해소 효과... 물 아낄수 있어 관리에도 용이

농촌진흥청은 빗물을 모아서 뜨거워지는 도시를 식혀주고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할 수 있는 실용적인 빗물정원 만드는 방법을 제시했다. 빗물정원은 빗물이 자연스레 모이게 만든 정원으로, 물가에서 잘 자라는 식물을 심어 저장된 빗물이 차츰 증발하면서 더운 공기를 식혀주고 다양한 식물도 감상할 수 있는 효과까지 있다.

개인주택이나 아파트 단지 또는 도로변 가로수길 등에 만들 수 있다. 빗물정원을 만들 때는 50-60cm 깊이로 땅을 파고 30cm 정도 자갈을 깔아서 자갈 사이사이 빗물이 모일 수 있도록 한다.

자갈층 위에 모래층을 약 10cm-20cm 채워주는데 이는 뿌리 생장이 왕성한 습생식물의 뿌리가 자갈층까지 뻗어 내려가는 것을 막는다. 이렇게 빗물

저장을 위해 만든 바닥층 위에 습지에서 잘 자라는 식물들을 심어주면 빗물정원이 완성된다. 빗물정원은 토양 표면온도를 낮춰줘 여름철 도심 열기 해소에 도움이 된다.

식물이 없는 토양 표면온도가 40℃-50℃까지 올라갈 때 식물이 있는 일반 정원의 토양은 35±2℃, 빗물정원은 30±3℃로 도심지 열기를 식히는 데 가장 효과적이었다.

또한 빗물정원은 이를 정도 빗물을 모아둘 수 있어 아침, 저녁으로 물주는 횟수를 줄일 수 있게 돼 물도 아끼고 물주는 노력도 덜 수 있어 정원 관리가 편리하다.

잔디밭은 빗물의 27%를 보유할 수 있는데 반해 들꽃(야생화)을 주로 이용하는 빗물정원은 빗물의 41%를 보유할 수 있다.

우리나라 기후에 맞는 빗물정원 식

물은 습기가 많은 환경에서 생육이 가능한 식물 중에서 건조에도 강한 식물들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지상부 높이에 비해 뿌리가 1.5배-2배까지 뻗어가는 그라스류, 사초류, 속새, 홍피 등은 넓은 면적에서 한 가지 식물로 빗물정원을 만드는 데 적합하다.

경관적인 아름다움을 생각해 여러 식물을 같이 심을 경우엔 박하류, 호스타류, 그리고 붓꽃, 꽃창포와 같은 아이리스류, 톱풀, 구절초 등을 약 15-20cm 간격으로 심어주면 된다.

이 시스템은 빗물저장고가 별도로 있는 형태로 폭우에 많은 양의 물을 모을 수 있다. 빗물저장고 위에 다 자

란 식물이 심겨진 식재층을 올려 구성한다.

컨테이너형 빗물정원은 특허출원된 폐 관련 업체로 기술 이전해 보급 중에 있다. 농촌진흥청은 수원시와 협력해 시범사업으로 2년차 기술검증을 마쳤으며 주말농장이나 개인텃밭으로 점차 보급이 확대될 전망이다.

농촌진흥청 한승원 농업연구사는 "도심지 곳곳에 빗물정원이 만들어지고 있으나 식물 관리가 어려워 식물이 죽거나 빗물정원의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곳이 많다"며, "앞으로 우리 주변의 작은 공간부터 우리 손으로 빗물정원을 하나씩 만들어간다면 보고 즐기는 정원뿐만 아니라 도시의 환경을 우리가 함께 개선한다는 공동체 의식을 만드는 데도 의미 있는 취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재용 기자

전북생진원, 기술 이전 설명회·협약식 진행

(재)전북생물산업진흥원(이하 생진원)은 지난 30일 자체 개발한 사업화 유망 기술 3건에 대해 기술이전 설명회 및 협약식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생진원의 축적된 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자체 개발한 사업화 유망기술을 도내 기업체에 기술이전해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사업화를 지원함으로써, 지역기업의 매출증대 및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 파급 효과가 기대된다.

농촌진흥청 한승원 농업연구사는 "도심지 곳곳에 빗물정원이 만들어지고 있으나 식물 관리가 어려워 식물이 죽거나 빗물정원의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곳이 많다"며, "앞으로 우리 주변의 작은 공간부터 우리 손으로 빗물정원을 하나씩 만들어간다면 보고 즐기는 정원뿐만 아니라 도시의 환경을 우리가 함께 개선한다는 공동체 의식을 만드는 데도 의미 있는 취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초식잡을 이용한 기억력 개선 조성물 제조방법(참바다 영어조합법인, 대표 이사 김종화)' 총 3건의 기술이 도내 3개 기업에게 각각 기술이전 됐다. 특히 이번 협약식에 기술거래 입회, 중개자로 참여한 한국산업은행 본점 기술금융실, 기술거래전문기관인 (주)GTTB, (재)전북테크노파크에서도 3건의 사업화 유망기술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내비쳤다.

한편, 생진원은 2015년 푸르메푸드빌, 콩마을 및 다나눔협동조합, 2016년 지리산쌀, 온누리친환경 및 신화창조 등 2015년부터 매년 3건씩 총 9건의 기술을 도내 기업에게 이전해 이전 받은 기업의 기술력 강화를 통한 성장에 큰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안재용 기자

롯데백 전주점, 유명 브랜드 한우 박람회 열어

롯데백화점 전주점은 우수인증 한우 브랜드가 참여하는 '유명 브랜드 한우 박람회'를 1일부터 8일까지 지하1층 식품관에서 진행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합평천지한우와 의성마을한우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날 수 있다.

사전 물량확보 및 유통단계 축소를 통한 4대 인기부위를 절반가로 기획했고, 주말 3일간 등심/채끝 로스부위

는 6,000원대, 불고기/국거리리는 3,000원대 판매 진행 예정이다.

또한 2일에는 한우 한마리 전 부위를 5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한우 한마리 풀고가세요~'와 3일에는 3만원 짜리 '럭키박스(Lucky Box)'를 구매하면 최대 70% 할인된 한우 선물세트를 획득할 수 있는 다채로운 이벤트가 준비돼 있다.

/안재용 기자

농협, 사료용 벼 시범재배 파종시연회 개최

쌀 재고 감축·조사료 부족 해소 추진

농협은 지난 31일 김제시 전주김제제원주축협 관내 벼 재배 논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유관기관, 농가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료용 벼 시범재배 파종시연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논에 사료용 벼 재배 확대를 유도해 쌀 과잉재고를 감축하고 국내 조사료 생산 확대를 목적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쌀 대체 사료용 벼 재배의 성공적 정착을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행사는 사료용 벼 시범재배 성공 기원 박 터뜨리기, 사료용 벼 재배 기술 및 종자, 기계정비 전시, 사료용 벼 직파 재배 시연 등으로 진행됐다.

현재 국내 쌀 재고량은 226만톤으로 FAO 권장 적정재고량(80만톤)을 크게 넘어선 것으로, 향후에도 공급과잉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농협은 쌀 과잉재고 해소를

위해 쌀 가공산업 활성화, 소비촉진, 해외 수출추진 및 대체작물 재배확대 등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으며, 그 중 효과범위가 크고 빠르며, 지속적인 방안인 논에 사료용 벼 시범재배를 추진하고 있다.

농협의 사료용 벼 시범재배 사업은 올해 5개 지역(당진,강진,고창,김제,고령)의 30ha의 논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무이자자금 100억원 지원과 농촌진흥청과 협력해 재배농가에 대한 컨설팅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국내 사료용 벼에 대한 생산비, 소득액 등 구체적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사료용 벼의 종자선정, 재배·생산, 가공사양시험, 생산비·농가소득 등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정성·정량적 효과분석도 같이 실시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자료 교본으로서 가치가 기대된다.



농협은 31일 김제시 전주김제제원주축협 관내 벼 재배 논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유관기관, 농가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료용 벼 시범재배 파종시연회'를 개최했다.

이와 함께 농협은 사료용 벼 생산으로 인한 농가소득 감소액 보전에도 계속 정부에 협조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농협중앙회 김병원 회장은 "논에 사료용 벼를 재배함으로써 쌀 과잉 생산을 줄이고 조사료 생산 확

대를 통해 수입조사료를 대체할 수 있다"며, "이번 시범사업의 성공적 추진으로 향후 쌀에만 의존하지 않는 논 농업 다양화 사업을 통해 농가의 안정적 소득 보장이 가능한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재용 기자

익산 거점단지 미니클러스터 통합 워크숍

한국산업단지공단 익산지사는 지난 30-31일 라마다호텔 전주에서 익산거점단지 미니클러스터 회원 및 지원기관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익산 거점단지 미니클러스터 통합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지역 경제의 밑바탕이 되는 중소기업 CEO 및 임직원을 대상으로 (사)캠텍종합기술원,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북경제통상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지원사업에 대해 소개하고 담당자와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원광대학교 권일현 교수를 초청해 산업기술동향 및 기술경영에 대한 강의와 WEVIO 이승환 대표의 4차산업혁명과 세계 무역 현황에 대한 강의가 이어졌다.

참석한 CEO 회원들은 불안한 산업 기술 동향에 대한 질문과 세계시장 진출에 관한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문공세가 이어졌다. 이에 전문가적 견해와 풍부한 경험을 가진 강사의 명쾌한 답변이 질문자 뿐만 아니라 경청자의 갈증을 풀어 줬다.

/안재용 기자

전북 중소기업인 한마음 대회 성료

중소기업중앙회 전북본부는 제29회 중소기업주간을 맞이해 지난 31일 오후 전주실내체육관에서 '2017 전북 중소기업인한마음대회'를 개최했다.

진홍 정무부지사와 정원탁 전북중소기업청장을 비롯한 유관기관장관과 전북지역 중소기업인, 협동조합 임직원 등 3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는 산업발전에 기여

한 중소기업 유공자 10명에 대한 시상식과 함께 다채로운 한마음 행사가 치러졌다.

임선명 중소기업중앙회 전북회장은 "중소기업인들도 글로벌화를 통해 우리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해 대한민국이 다시 뛰는데 앞장 서 나가자"고 말했다. /안재용 기자

우리동네 무인주차장 어디에 있을까?

주차하고 구경하고 무인주차장에 주차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편리합니다.



[전주시 무인주차장 안내]

- 서부신시가지 도청옆**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75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농협중앙회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5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다은병원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2길 5-12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KB은행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1길 4-1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노송천 주차장**
전주시 노송여울2길 108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덕진광장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덕진광장로 3 (239-2562)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실내체육관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권삼덕로 308 (251-1264) (연중무휴) 4,000원 기본(30분):500원, 추가(15분):250원